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열렬한 사랑과 정, 믿음과 의리로 인류를 품어안아 주신 20세기의 태양이시다.

한번 뵐으면 순간에 온님이 물리고 그 위대함을 소리높이 구가하게 되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위인정모였다.

태양의 일과도 같은 사랑과 인류에 끌려온 세계가 그이의 품에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고결한 인품과 빛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시대의 새 역사로 걸쳐 주신 회색의 치기와 실루엣이 한없이 고장한 인간애를 지니시고 진보적인 유를 끌어 주신 만민의 어버이, 인간 사랑의 찰나를 귀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의 깃마디에는 숭고한 사랑과 의리로 세대와 역사를 수놓으신 가슴드높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아로새겨져있다.

주제 7.3(1984)년 5월 2 1일, 《씨비리의 수도》로 불리우는 노보씨비로스코에서 세인을 감동시키는 화폭이 펼쳐졌다.

세기의 대성인으로 칭송받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 방문의 정성을 이어가면서 걸어온 행보에 노비제과와 갑작적인 상봉을 하시었으 것이다.

노비제과는 해당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자기 전화를 세울수록 내면 국제주의 전사였다.

수십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를

잊지 않고 심중에 새겨 두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활한 씨비리대지를 횟단하시는 길에 노보씨비로스의 능운마을에서 조용히 어상을 보내고 있다.

수십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씨비리의 정범한 늙은이로 변한 노비제과.

하지만 철기에 넘치던 젊은 시절의 젊은 군관에 군관에 대단히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만가우시여 노비제과를 떠나는 데에 만족하였다.

20세기로 대표하는 걸출한 위인과 씨비리촌에 후반생

문은 청명한 청정로병파의 상봉은 그야말로 사변적인 것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군중들은 그 광활한 일대에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다.

온 행성이 위대한 인간 이신 우리 수령님의 고매한 헌

혁성, 친합을 모르는 의리의 세계에 미리풀 속이는 혁사적인 순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살았던 영광을 지닌 외국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했다.

『사람을 진짜인간으로 되게 하는 것은 자주성에 기초한 인간애와 인정성이 그것을 인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름다운 꽃이 풍기는 향기로 만하여 밤과 나비들이 모여 봄을 고사한 인간이 지닌

인간애와 인정미에 혹하고 하겠다고 교시하였다.

모스크바에 재류하시는 기간

에도 노비제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열영웅상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수십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를

잊은 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방문을 마치신지 얼마 안되어 노비제과와 그의 가족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었다.

미나먼 지방현지지도의 길에

서 노비제과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류탄을 봄으로

막아나셨던 대답수령왕 영웅전사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본심이 세게진 금시계를 선물로

안겨주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비제과를 자주 우리 나라로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운정을 다 털려주시었다.

전쟁 세월의 흐름에도 범함이

없고 꿈을 모르는 가장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과 의리의 역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는 그대로 인간사랑의 힘을 품었으며 지구를 가득 채운 그의 완한 미소, 따사로운 손길은 인간세상을 감싸주는 태양의 빛과 열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두루이나 만나는 영광을 지닌 외국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했다.

『사람을 진짜인간으로 되게 하는 것은 자주성에 기초한 인간애와 인정성이 그것을 인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름다운 꽃이 풍기는 향기로 만하여 밤과 나비들이 모여 봄을 고사한 인간이 지닌

인간애와 인정미에 혹하고 하겠다고 교시하였다.

모스크바에 재류하시는 기간

에도 노비제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열영웅상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수십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를

만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으며 언제나 그이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고있다.』

이 말은 그 폭과 깊이를 해아릴 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력과 사랑의 세계에 대한 예찬이었다.

미나먼 지방현지지도의 길에

서 노비제과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류탄을 봄으로

막아나셨던 대답수령왕 영웅전사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본심이 세게진 금시계를 선물로

안겨주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비제과를 자주 우리 나라로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운정을 다 털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비제과를 자주 우리 나라로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운정을 다 털려주시었다.

전쟁 세월의 흐름에도 범함이

없고 꿈을 모르는 가장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과 의리의 역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5.4(1965)년 4월 시하누크와 첫 상봉을 하신 때로부터

3.0년 세월 번개없는 의리로

포절많은 인생길을 걸은 그를

지켜주고 이끌어주시였다.

언제나 시하누크는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에 자주 찾아와

제를 끼쳐서 비안하다고 말씀드

렸던 것이다.

만남은 자주만 해빛을 따르고

사람은 진정어린 사랑을 따르기

마련이었다.

온 세상을 밝혀주고 덕여주는 사랑의 빛과 함께 광명을

주고 침침한 풀을 주신 우리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만남은 한 번에 만족을

나누고 만족을